우리나라의 세계유산 ⑫ 창덕궁(昌德宮)

1610년부터 1868년까지 258년 동안 정궁(正宮)으로 사용

이 종 훈
포천 향교사무국장

창덕궁(昌德宮)은 1610년 광해군 때부터 1868년 고종이 경복궁을 재건할 때까지 258년 동안 정궁(正宮)으로 사용된,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궁궐이었다. 창덕궁에는 현존 가장 오래된 궁궐 정문인 돈화문(敦化門)을 비롯해 인정전(仁政殿), 선정전(宣政殿) 등의 정치 공간, 왕과 왕후 및 왕가 일족의 침전(寢殿) 공간, 그리고 연회, 산책, 학문을 위해 존재했던 후원(後園) 등으로 이루어졌다. 창덕궁이 왕궁으로 사용되었던 17세기 초에서 19세기 중엽에 이르는 시기를 개괄해보면 이 시기의 정치는 반정(反正), 환국(換局), 탕평(蕩平), 세도정치(勢道政治) 등의 단어로 특징지을 수 있다.

17세기 후반부터는 한 정치세력이 반대파를 몰아내고 정권을 차지하여 철저히 탄압하는 환국이 되풀이 되었다. 그러다가 18세기 중엽이 되면 한 당파가 일당독재를 하지 않고 다른 당파와 공존하는 탕평책이 추진되었다. 영조와 정조에 의해 이루어진 이 시기를 '조선 왕조의 르네상스기'라고 부른다. 특히 정조는 규장각(奎章閣)을 설치하고 인재를 널리 등용하여 학문과 기술을 장려했다. 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실학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정조가 갑자기 죽고 그의 나이 어린 아들 순조(純祖)가 즉위한 이후 19세기는 조선 왕조 역사상 암흑기라고 할 수 있다. 나이 어린 왕을 대리하여 대비와 외척들이 정권을 독차지하여 여러 폐단이 생겼기 때문이다. 국왕의 외척, 그리고 그들과 연계된 몇 몇 가문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어 유능한 인재들이 희생되었다. 또 중앙 정치세력과 연줄이 닿은 자들이 돈으로 관직을 매수하여 백성들을 착취하였다. 조세제도, 군역제도, 환곡(還穀) 등 3정(政)이 문란해졌다. 그리고 홍경래(洪景來)의 난, 진주(晉州)민란 등 대규모 농민봉기도 이 시기에 발생했다.

창덕궁은 원래 조선 초기에 경복궁의 이궁(離宮)으로 지어진 궁궐이었다.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전쟁이 끝난 후 다시 지었다. 이후 경복궁을 대신하여 19세기 중엽까지 정궁 역할을 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도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황제가 재위시에 궁궐로 사용했고, 1910년 한일병합 이후에도 여전히 이 궁궐에 거처하다가 최후를 맞기도 했다.

이 궁궐은 여러 번 화재를 겪었는데, 마지막으로 1917년에 대조전(大造殿)과 희정당(熙政堂) 등 침전 건물들이 화재로 소실되어 일제는 1920년에 경복궁에 있던 교태전(交泰殿)과 강녕전(康寧殿)을 옮겨 복원하였다. 창덕궁에 대한 기록과 모습은 조선왕조실록, 동궐도(東闕圖) 등에서 발견된다. 특히 1830년경의 작품인 동궐도를 통해 창덕궁의 건물배치와 건물형태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 그림은 1980년대 창경궁(昌慶宮)을 복원할 때 주요 참고자료가 되기도 했다. 궁궐은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정치 공간, 생활공간(침전), 후원이다.

조선 왕조의 궁궐은 다섯 개가 있었다. 각 궁궐에는 일정한 질서가 있었다. 특히 왕을 중심으로 정치가 행해지는 공간인 정전과 편전(便殿)에는 모두 '정(政)'(정치라는 뜻)자의 이름이 붙여졌다. 또한 각 궁궐의 정문에는 '화(化)'(교화의 뜻)자가 붙여졌다. 다만 경운궁(慶運宮)만은 예외이다. 그것은 대한제국 선포 이후에 다시 조성되었기 때문에 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창덕궁 후원에는 부용지(芙蓉池)라는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 뒤쪽에 주합루(宙合樓)라는 건물이 있다. 이 건물은 18세기 정조대왕 개혁정치의 산실이라 평가받고 있는 규장각으로 쓰였다. 주합루 뒤쪽 산 속에는 연경당(演慶堂)이라는 기와집이 있다. 99칸짜리 건물인 이 집은 궁궐 밖 사대부 집을 본떠 궁 안에 세운 것으로 국왕이 사대부의 생활을 체험해 보고자 건립한 것이었다. 생활공간 가운데는 낙선재(樂善齋)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최근인 1980년대 말까지도 대한제국의 황족들이 사용하였다.

인정전

창덕궁은 정궁이었던 경복궁의 건축양식을 모범으로 하여 건설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중엽 경복궁을 중건할 때에는 다시 당시 정궁 창덕궁의 건축양식을 참고하였다. 이로써 창덕궁은 경복궁에 진 빚을 갚은 셈이었다.

창덕궁의 여러 건물들은 국보와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창덕궁은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교육에세이 43

성공은 꿈을 포기하지 않을때 이루어진다
(잠을 자는 자 꿈을 꾸고 독서하는 자 꿈을 이룬다)

지 정 주
포천여자중학교 교장

사랑하는 포천의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 드린것 처럼, 시간의 흐름은 빨라서 벌써 1학기말을 맞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미 1학기말 시험을 치뤘을 것입니다. 며칠후면 학교별로 여름 방학에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각자 자신의 원대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준비를 성실하고 슬기롭게 할 수 있도록 분명한 목표 설정과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 있는 생활을 해나가는데 도움을 드리는 글을 싣고자 합니다.

인생은 꿈입니다. 인간이 산다는 것은 각자 나름대로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 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땀과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요 교육자였던 클라크(William S. Clark)는 "Boys, be ambitious.(젊은이여, 대망을 가져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청운(靑雲)의 뜻을 품는 것이요, 올바른 이상과 목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입지(立志)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율곡 선생은 젊은이들에게 '선수입지(先修立志)를 강조하셨습니다. 모름지기 먼저 뜻을 세워라, 뜻이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요, 뜻을 세워야 살아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꿈이 있다는 것은 희망과 의욕과 이상과 정열, 그리고 생의 용기가 솟구친다는 것이요, 꿈이 없다는 것은 이들이 상실되고 붕괴됐다는 것입니다.

미국 MIT를 졸업해도 슈퍼마켓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일에 흥미와 관심을 갖는 게 성공의 열쇠인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때 남보다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하는 일이 재미있고 만족스럽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국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주희는 '정신일도 하사불성(精神一到 何事不成)'이라고 해 정신을 가다듬어 한 곳에 힘쓰면 무슨 일이나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정신으로 이뤄져 있는데 그 본질이며 기본이 되는 것은 정신입니다. 모든 종교가 하나 같이 정신이 육체에 군림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체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의 조화로부터 형성되는 것이다.(일체유심조: 一切有心造). 행복과 불행도 내 마음의 조화요, 성공과 실패도 내 마음의 조화라는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은 자신과 자기가 하는 일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학창 생활을 사랑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누가 시켜야 겨우 하는 척 시늉을 내고 마지못해 자기 할 일을 한다면 그런 사람은 어디가나 환영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진인사 대천명(盡人事 待天命)'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뜻은 사람이 할 일을 다하고 천명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이른바 행운이라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합니다. 분명한 뜻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좋은 결실을 얻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개미같이 근면하게, 꿀벌같이 성실하게, 황소같이 끈기 있게, 끝도 시작같이, 언제라도 해야 할 일은 지금하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정성을 다하는 자세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혼을 담은 노력은 결코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법입니다.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 발돋움하는 학생 여러분! 꿈은 꾸기도 하지만 갖기도 합니다. 꿈은 클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좋은 꿈이어야 합니다. "학생은 장차 사회에 나아가 활동할 준비를 하는 사람이므로, 실제적인 학문과 기술을 익히기에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주의 삼라 만상이 창조의 역사를 준비하기에 분주하듯 우리도 내일을 위한 준비에 힘써야겠습니다. 그 준비는 실제적인 학문과 기술을 우리 몸에 익혀 창조의 도구로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삶은 그 준비를 성실하게 엮어온 젊은이에게 면류관을 줄 것입니다. '학생은 꿈을 키우며 성장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꿈을 키워야만 희망을 가꿀 수 있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찾아 부단히 노력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눈부신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원대한 꿈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초석으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한 후 그 목표에 도달하고 또 근접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기 바랍니다. 큰 꿈, 좋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그 결과와 상관없이 그는 이미 그 꿈의 절반 이상을 이룬 셈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익스피어 에세이

마키아벨리적 정치인이 아직도 존재하는가

박 정 근
대진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일간신문에 난 정치인들의 사진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한 독자들이 많았으리라. 어제까지도 앙숙이 되어 싸우던 한나라당 후보 두 사람이 사이좋게 미소를 짓는 모습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연기가 숨어 있었다.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당의 요구로 서로 화해하는 자리에서 다정한 오누이처럼 포즈를 취한 것이다. 이명박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경부운하에 대한 정부 모기관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른 후보가 서로 내통을 했다느니, 정수장학회에 모종의 의혹이 있다느니 하면서 서로 치고박고 하던 두 사람이 어느덧 저렇게 다정한 사이가 되었단 말인가. 그들의 모습이 진정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그들의 갈등이 한나라당 지지도나 개인적인 지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자 일종의 연극적 행사를 통해서 반전시켜보자는 정치적인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 **"세상의 폭풍이 몰아치는 듯 한 바다에서 우회적인 항로로 취하는 것이 가끔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다. 합리가 올바른 항로로 항구에 도착할 수 없다면 거기에 이르기 위해 배를 돌려 항로를 바꿔야 한다. 여기에서 누가 나를 비난할 것이며 미덕을 포기한 이유를 요구하겠는가? 포도주는 약간 물을 타더라도 역시 포도주이며 몇 방울의 기만이 거기에 섞였다할지라도 신중함이 그의 이름을 바꾸지 못한다. 나는 선한 목적을 위한 작은 거래를 의미한다."**

셰익스피어의 사극 『헨리 4세』에서 통치자인 헨리4세는 매우 연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모반을 통해서 리챠드2세를 몰아내고 왕권을 획득한 과거의 사실 때문에 정권의 정통성이 흔들리는 상황을 맞는다. 노섬버랜드와 대주교가 그가 했던 것처럼 모반을 일으킨 것이다. 그는 자신이 범한 반역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명을 한다. "그건 의도가 없었으나 국가의 필요에 굴복하여 왕위를 수락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 그는 또한 이 내란이 진압이 되면 함께 성지에 가자고 제안을 한다. 그는 자신의 통치권과 성지와 연결시킴으로써 그의 권력을 신성시하고자 하는 연극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마키아벨리적 속임수를 임종을 맞아서야 왕자할에게 고백한다. 그가 왕권을 찬탈이라는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했기 때문에 고충이 많았다고 언급한다. 그는 이어서 부하들이 들어오자 다시 자신의 죽음과 예루살렘을 관련시킴으로써 다시 외관에 의지하여 그의 정체성을 신성시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신성한 성지 밖에는 없다고 강조한다. 그의 진술은 내면의 신앙심이라기 보다는 헨리왕 자신의 위상을 신성시하려는 통치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셰익스피어가 창조한 마키아벨리적 인물 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재현되었다고 보는 인물은 왕자 할이다. 그는 부왕에게 오해와 미움을 받는 것을 불사하고 왕자로서 신임을 잃을 수 있는 행위를 일삼는다. 특히 폴스타프 일당과 어울리면서 술, 여자, 절도 등의 어둠의 세계를 누비고 다닌다. 그러나 그가 헨리 5세로 왕위에 오르자 과거와 단절하고 위엄 있는 군왕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연출한다. 우선 그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왕으로서의 자질을 보여준다. 그가 왕자시절에 부왕의 대리인으로 국정을 담당했던 대법원장에게 자신의 무례했던 과거의 사실에 대해 책임을 묻는 체 한다. 왕자 할은 법을 어기고 이를 제지하려는 국왕의 대리인인 대법원장의 뺨을 때리는 행위는 절대 왕권에 거역하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그를 오히려 칭찬한다. 왕자 할의 변화는 어둠의 세계에서 나와 선왕들이 지녔던 위엄의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연극적 행위이다. 그가 "태양을 모방하려고 하는 것은 왕의 역할에 대한 훌륭한 연기를 해보이는" 마키아벨리적 사고라고 볼 수 있다.

저스투스 립시우스는 마키아벨리적 사고에 대해서 권력의 유지와 통치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정도에서 벗어난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세상의 폭풍이 몰아치는 듯 한 바다에서 우회적인 항로로 취하는 것이 가끔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다. 합리가 올바른 항로로 항구에 도착할 수 없다면 거기에 이르기 위해 배를 돌려 항로를 바꿔야 한다. 여기에서 누가 나를 비난할 것이며 미덕을 포기한 이유를 요구하겠는가? 포도주는 약간 물을 타더라도 역시 포도주이며 몇 방울의 기만이 거기에 섞였다할지라도 신중함이 그의 이름을 바꾸지 못한다. 나는 선한 목적을 위한 작은 거래를 의미한다."

한나라당이 만들어낸 두 후보들의 다정한 모습의 연출은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국민들에게 약간의 눈속임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속마음을 내보인 것이다. 그야말로 마키아벨리적 사고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자세는 사실 국민들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하등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저스투스 립시우스는 이런 사고방식을 "어머니나 의사는 맛을 약간 속여서 절제할 줄 모르는 나이의 아이들을 그리 자주 속이지는 않지만 목적을 위해서 기만적인 맛으로 경계하지 않는 나이 또래를 속일 수 있다. 단순한 민중들을 향해서, 또는 그의 이웃인 다름 왕에 대해서 똑같은 일을 해서는 안되는가. 분명히 문제를 논쟁할 만큼 힘이 없으면 몰래 속임수를 쓰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정치인들은 인터넷 시대를 맞이해서 국민들의 정보 수용 능력이 대단히 발달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은 셰익스피어가 그리고 있는 16세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자신의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주고 한번 뱉은 말은 확실하게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기 바란다.

2007년 생활체육교실 운영

포천시체육회에서는 시민의 건강과 생활에 활력을 주고자 1인1종목 생활 체육교실을 운영합니다.

- 운영종목 : 배드민턴, 테니스, 농구, 궁도, 축구, 게이트볼, 탁구, 족구, 프리테니스, 씨름, 검도
- 운영기간 : 2007. 7. 9 ~ (40일간)
- 참가자격 : 포천시민 누구나(개소별 20명 선착순모집)
- 접수 및 문의 : 031-538-2797(각 종목별 장소로 문의 가능)

종 목	장 소	운영시간 (월~금 40일간)	지도자	연락처
테니스	영중중학교 테니스장	월~금(09:00~10:30)	강 신 현	016~343~6715
배드민턴	포천중학교체육관	월~금(20:00~21:30)	이 주 철	011~354~6557
농구	포천실내체육관 or 대진대체육관	토(19:30~21:00)	나 수 진	017~202~3191
궁도	동부정	월~금(16:00~17:30)	유 광 열	017~261~0649
족구	종합운동장 족구장	화 · 목(20:00~22:00)	조 치 행	011~9653~7285
게이트볼	운산리게이트볼장	월~금(16:00~17:30)	김 영 일	016~748~4314
축구	청성공원 or 종합운동장	금(18:00~20:00) or 일(07:00~09:00)	박 해 정	010~7161~9107
탁구	유림회관 3층	월~금(20:00~21:30)	김 영 호	010~5600~5622
프리테니스	천지테니스장	월~금(09:00~10:30)	이 승 남	017~713~0357
씨름	종합운동장	월~금(18:30~20:00)	이 연 구	017~706~2337
검도	명무검도관	월~금(10:30~12:00)	이 명 수	011~434~7772

포천시 체육회

2007 프로그램 보급사업 "청소년체련교실" 래프팅 캠프

"가파른 물살에서의 추락을 이겨내는 쾌감은 래프팅을 통해 얻는 성취와 선물입니다."

포천시체육회에서는 2007 프로그램 보급사업 "청소년체련교실" 래프팅 캠프를 통해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운동을 경험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운동에 대한 흥미유발 및 체력향상은 물론 여가 선용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청소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교실명 : 2007 프로그램 보급사업 "청소년체련교실" 래프팅 캠프운영
- 운영종목 : 래프팅
- 기간 : 2006.7.24(화) ~ 7.25(수) 【1박2일】
- 장소 : 한탄강
- 참가대상 : 관내 중고등학생
- 참가인원(예정) : 14개교 60명(선착순 모집)
- 접수기간 : 2007.7.18(수) 18:00까지
  - 접수처 : 포천시체육회(031-538-2797)
- 구비서류 : 참가신청서 1부
- 참가비(1인 기준) : 일금 103,400원
  - 참가자 부담금 일금 20,000원

※ 본 행사에 참가하는 모든 청소년은 상해보험에 가입함을 알려드립니다.

포천시 체육회

2007 프로그램 보급사업 "어린이체능교실" 래프팅 캠프

"가파른 물살을 가르며 균형을 잡는 일은 거친세상의 두려움과 맞서는 당당함이다."

포천시체육회에서는 2007 프로그램 보급사업 "어린이체능교실" 래프팅 캠프를 통해 어린이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운동을 경험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운동에 대한 흥미유발 및 체력향상은 물론 레포츠를 통하여 모험심과 협동심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어린이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교실명 : 2007 프로그램 보급사업 "어린이 체능교실" 래프팅캠프 운영
- 운영종목 : 래프팅
- 기간 : 2006.7.23(월) ~ 7.24(화) 【1박2일】
- 장소 : 한탄강
- 참가대상 : 관내 초등학교(5학년 ~ 6학년)
- 참가인원(예정) : 관내 초등학교 60명(선착순 모집)
- 접수기간 : 2007.7.18(수) 18:00까지
  - 접수처 : 포천시체육회(031-538-2797)
- 구비서류 : 참가신청서 1부
- 참가비(1인 기준) : 일금 103,400원
  - 참가자 부담금 일금 20,000원

※ 본 행사에 참가하는 모든 청소년은 상해보험에 가입함을 알려드립니다.

포천시 체육회